

* 이 말씀은 '11월 20일부터 순회를 맞이한 나라'를 제외하고,
섭리세계 각 나라 모든 교회에서 전할 <11월 20일 주일말씀>임.

<11월 23일 수요일>에는 '잡생각, 잡념, 불의를 끊고 하나님ی 명하신 것들을 해라.'
- 이 말씀을 전하면 됨.

* 순회를 맞이한 나라는 <11월 20일 주일>에 '순회 말씀'을 듣고,
<11월 23일 수요일>에는 '계시 말씀'을 듣는다.

순회 후 <11월 27일 주일>에 '정상을 넘어가면 못 견딘다.' - 이 말씀을 전하고,
<11월 30일 수요일>에는 '잡생각, 잡념, 불의를 끊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해라.'
- 이 말씀을 전하면 됨.

* 순회를 맞이하는 나라를 제외하고,
전체 교회가 듣게 될 <11월 27일 주일말씀>은 추후 공지하겠음.

* 순회를 맞이하는 나라를 제외하고
전체 교회는 <11월 30일 수요일>에 '명설교'를 듣는다.

* 순회를 맞이하는 나라와 섭리 전체 교회와 말씀 배치가 다른 이유는
<11월 20일 순회 당일 말씀>이 '11월 19일 토요일 저녁'에 완성되기 때문'임.

이번에는 현지 사정상 전 세계 생방송이 불가하여,
부득이하게 말씀 배치를 다르게 함.

정상을 넘어가면 못 견딘다

본 문 누가복음 20장 38절 (핵심 봉독)

『하나님은 ‘죽은 자’의 하나님이 아니요, ‘살아 있는 자’의 하나님이시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정상을 넘어가면 못 견딘다.

정상을 넘어가면 모두 고통이다.’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사람은 잠을 안 자면 ‘졸음’을 못 견디고,
밥을 안 먹으면 ‘배고픔’을 못 견디고,
아프면 ‘아픔’을 못 견디고,
더우면 ‘더위’를 못 견디고,
추우면 ‘추위’를 못 견딩니다.

이것이 ‘정상’ 일까요? 아닐까요? (잠시 쉬었다가)

네! ‘정상’입니다.

사람은 당하는 만큼 고통을 느낍니다.

- ◆ 사람들이 왜 이리 못 견디느냐고 기도하니,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물론 연단을 받으면, 어느 정도는 견딘다.

그러나 사람은 ‘못 견디는 것’ 이 <정상>이다.

안 자도 견디는 자는 불면증이 있는 자다.

안 먹어도 견디고,

아파도 견디는 자는 무감각하고 무딘 자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사람은 <정상>을 벗어나면, 모두 ‘고통’입니다.

- ◆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도

<정상>을 벗어나고 <선(線)>을 벗어나면 ‘고통’입니다.

- ◆ 행하되, <정상>을 벗어나지 않고 견디며 행해야

원하는 대로 이상적으로 계속 행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.

- ◆ 하나님은 사람이 <한계>를 넘어도 견디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.

또 사람이 <모든 것>을 참고 견디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.

작든지 크든지 무엇이든지

거기에 따라 쉽고 어렵게, 좋고 나쁘게, 편하고 힘들게

저울같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.

- ◆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

“사람은 왜 그렇게 마음이 간사하고 잘 변하지?

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한다.” 하지만

하나님은 온도계나 저울이 ‘예리’ 하게 반응하듯이
인간이 ‘아주 예리한 반응’ 을 보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.

그리함으로 인간 스스로
<좋은 것>과 <나쁜 것>을 알고 분별하여 행하고,
작은 것이라도 <행할 것>을 분별하여 행하고,
<행하지 않을 것>은 분별하여 안 하게 하셨습니다.

◆ 만일 인간을 ‘돌’ 같이 감각이 무디게 창조해 왔다면,
분별하지 못하고 마구 행하여 바로 몸이 망가질 것입니다.

◆ 각종 기계들도 예리하게 만들어 왔습니다.

고로 무리하게 사용하면
가열되어 터지기도 하고, 고장 나고 망가져 버립니다.

◆ 온도계나, 저울이나, 각종 기계들을 예리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,
100% 완전하게 측정하지 못합니다.

◆ 그 견고하고 웅장한 자동차나 비행기도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 와서
목적을 두고 100%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◆ 사람도 그러합니다.

명지 털 하나라도 더하여 몸에 닿으면 느끼고,
빠도 느끼게 예리하게 창조되었습니다.

100% 완벽하고 깨끗하게 구상하고 행하게 창조되었습니다.

고로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

100% 온전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.

◆ 사람도 예리하게 창조해 놓지 않았으면,

감각이 없어서 분별을 못 하고 무리하게 막 행하다가
하루도 못 가서 몸이 다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.

사람이 예리하게 창조되었으니,

마음도 그리 잘 변하는 것입니다.

◆ 사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나가도
예리하게 반응하여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.

고로 모기나 해충이 안 보여도 자기 몸을 물면,
바로 느끼게 하여 잡아 없애게 하셨습니다.

만일 벌레가 물어 어느 한 곳이 퉁퉁 부어올라도 모르게
감각 없이 창조되었다면,
벌레가 몸을 다 뜯어 먹어서 뼈만 남아도 안 아프니
그 상태로 그냥 다닐 것입니다.

◆ 하나님은 사람을 예리하고 감각 있게 창조해 놓으시고,
저마다 필요할 때 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.

만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면 위가 망가지고,
잠을 안 자도 전혀 상관이 없으면 몸이 망가지고,
병이 들었는데도 아픈 것을 모르면 건강이 파괴됩니다.

실상 이런 자는 ‘잘 참는 자’가 아니라

‘감각이 무딘 자’요, ‘그 면의 죽은 자’와 같습니다.

- ◆ 교회가 좋아도 견디면서 “우리 교회는 잘 견뎌.” 하는데,
실상 이 교회는 ‘새로운 세계에 죽어 있는 교회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

“인생... 조금만 늦게 자도 늦게 일어나고,
조금만 늦게 먹어도 배고프고,
안 자면 못 견디고, 안 먹으면 못 견뎌니다.

인생은 ‘못 견디는 인생’입니다.” 했더니,

성령님은 “뭘 해도 느낌도 없이 견디게 만들어 났으면,
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뜨거워서 온도가 높아도
온도계의 눈금이 그 자리에서 견디고 가만히 있으면,
그것은 ‘죽은 온도계’입니다.

저울에 물건을 달아도
저울추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견디고 있으면,
그것은 ‘죽은 저울’입니다.

사람도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느끼고
즉시즉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.

그래야 무리하지 않게 조정하고,
피할 것은 피하고, 행할 것은 행하면서 삽니다.

- ◆ 배고픈 것을 못 느끼고 견디면,
위액이 나와서 위가 망가지고,
몸 전체에도 영양 공급이 안 되어 쇠약해지고 죽습니다.

이렇게 <정상의 선>을 넘었는데도 무감각하여 못 느끼고 견디면,
결국 그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 ‘존재’를 못 하게 됩니다.

이와 같이 <신앙>도 ‘무감각한 자’가 되면,
<신앙의 할 일>을 안 해도 잘 견딥니다.

그러나 그로 인해 결국 ‘존재’를 못 하게 됩니다.

- ◆ <기도를 안 해도 잘 견디는 자>는
이미 신앙이 망가지고 병들어서 ‘죽음에 이른 자’입니다.

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파서 먹듯이,
하루만 잠을 안 자도 졸려서 자듯이,
하루만 기도 안 해도 못 견디고 하는 자는 ‘살아 있는 자’입니다.

- ◆ 매일 하늘 앞에 드리는 제사,
곧 <새벽 제단을 폐하고도 잘 견디는 자>는 ‘죽은 자’입니다.

<죽은 자>는 할 것을 안 해도 견딥니다.

- ◆ <매일 주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도 잘 견디는 자>는
이미 신앙이 병들어 죽음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.

<죽은 자>는 안 먹어도 견딥니다.

- ◆ <각종 할 일을 안 해도 잘 견디는 자>는
그 면의 감각이 죽어서 잘 견디는 것입니다.

- ◆ <잠을 안 자도 견디는 자>는
특별한 초인이 아니고 ‘불면증 환자’입니다.

- ◆ 잠잘 때 되면 못 견디고 자고,
먹을 때 되면 배고파서 못 견디고 먹고,
일할 때 되면 못 견디고 일해야 ‘정상’입니다.

이와 같이 <기도 시간>이 되면 못 견디고 기도하고,
<교회 갈 때>가 되면 못 견디고 가고,
<전도할 때>가 되면 못 견디고 전도하러 가고,
<관리할 생명>이 있으면 못 견디고 관리하고,
<대화할 때>가 되면 못 견디고 하늘과 땅과 만물과 대화하고,
<할 일>이 있으면 못 견디고 하는 자가 ‘정상’입니다.

- ◆ <할 일을 두고도 안 하고 계속 견디는 자>는
감각이 죽은 자입니다.

- ◆ <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듣는데
교회에는 나오는 사람>이 있습니다.

심령은 죽어 있는데 육만 교회에 오는 자입니다.
살아나야 됩니다!

- ◆ <감사하지 않고 주와 교통하지 않는데 견디며 사는 자>는
그 면이 죽어서 그쪽에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.

살려야 됩니다! 부활시켜야 됩니다!

- ◆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주를 안 믿어도 잘 견디고 삽니다.
왜요? 사망권에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.

<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는 자들>은
안 믿으면 못 견디고,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못 견디고,
행할 일을 안 하면 못 견딩니다.

이것이 곧 ‘살아 있다는 반응’ 입니다.

- ◆ <생각과 정신이 죽은 자들>은
하나님과 주를 안 믿고 안 찾기도 잘 견디고,
할 일을 안 하기도 잘 견딩니다.

<죽은 자>는 죽었기에 못 얻습니다.
오직 <살아 있어 행할 것을 행하는 자>만 얻습니다.

- ◆ 교회도 그러합니다.
<죽어 있는 교회>는 ‘할 일’ 을 안 해도 모르고 삽니다.

<화목과 화평>이 없어도 잘 견디고,
<전도와 관리>가 잘 안 되어 죽어 있어도 잘 견디고,
<각종 할 일>을 안 해도 잘 견딩니다.

<살아 있는 교회>는 표가 나게 행합니다.

- ◆ 전 세계의 각 나라 각 교회 모두 <자기 교회>를 잘 봐야 됩니다.
또한 <목회자>도 잘 봐야 됩니다.

죽어 있으니 할 일을 모르고 견디고 있는지,
살아 있어서 각종으로 표가 나게 행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.

<살아 있는 자>는

교회나 목회자의 모순을 보고 못 견디고, 주께 알립니다.

<죽은 자>는 같이 죽어 있으니 못 봅니다.

- ◆ <모순, 육성, 악과 불의>는 견디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!
그리고 <선과 진리와 의>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!

<말씀 마무리>

◎ 오늘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<생각이 죽고 감각이 죽은 자>는
무기력하여 ‘할 일’ 을 안 하고도 잘 견딩니다.

기도를 깊이 해 봐요!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.

주의 말씀을 듣고,

자기 생각을 집중하고 칼날같이 예리하게 하여 기도해야 됩니다.

자기가 무엇을 못 하고 있는지,

무엇을 회개하여 소각해야 하는지,

꼭 알고 행하고 소각해야 될 때입니다.

- ◆ 이제 연말입니다. 연말에는 하나님이 꼭 행하십니다.

<축복>도 주시고, <심판>도 하십니다.

이미 한국뿐 아니라 각 나라에 모두 시작하셨습니다.

<110일 기도 기간>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
이 기간에 ‘연말’ 이 끼어 있습니다.

이때 꼭 ‘소각해야 할 것들’ 을 소각해야 됩니다.

<죄>가 ‘실오라기’ 만큼만 있어도 못 견디고,
기도하고 회개하여 씻어 버려야 됩니다.

개인의 것도, 가정의 것도, 민족의 것도, 세계의 것도
꼭 ‘소각할 것들’ 을 소각해야 됩니다.

- ◆ <의의 미인>은 마치 미인이 자기 얼굴과 몸을 관리하듯이,
하나님과 주 안에서 ‘의’ 를 행하면서
<자기 의>로 ‘자기 생각과 행실과 혼과 영’ 을 관리하며
티 없이, 흠 없이 만듭니다.

- ◆ 각종 미디어를 보면서 빠져 살아도,
술을 먹어도, 담배를 피워도,
각종 안 좋은 말, 강한 말, 상처 주는 말을 해도,
세상 것들에 휩쓸려 주를 떠난 행위를 해도,
시대 말씀과 주를 떠나 살아도,
휴거와 영원한 것을 잊고 살아도
<잘 견디고 별 감각 없이 사는 자>는
<의의 생명이 죽어서 방에서 장사 지내고 사는 자>입니다.

<살아 있는 자>는 ‘예리’ 하여 하루도 못 견딩니다.

- ◆ 자기 속에 <진리>가 죽어 있고, <휴거>가 죽어 있고,
성약역사 핵심인 <주와의 사랑>에 죽은 자는
1년이 가도 돌덩이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.

죽어 있으니 자기 혼과 영이 사망에 죽어 있어도 모르고,
뜨거운 것도 모르고 지옥 불에서도 잘 견디고 삽니다.

살아 있으면 그 혼과 영이

사망과 지옥을 구경만 해도 토하고, 놀라고,
충격 받고 바로 나오려 몸부림을 칩니다.

그것이 ‘살아 있다는 반응’입니다.

◆ <이성과 동성에 살아 있는 자들>은

상대가 ‘실오라기’ 만큼만 다가와도 ‘반응’을 보이며
<자리>를 옮기고 <생각>을 옮기고 행합니다.

그러나 <이성과 동성에 죽어 있는 자들>은

상대가 만지고 안고 관계를 해도

“더 하자. 더 느끼자. 더 자극시키자.

더 뇌를 흥분시키고, 더 몸을 태워 재가 되게 하자.” 합니다.

그러다 후에는 후회하면서 ‘회개의 길’을 가는데,

남몰래 산을 넘고 가시밭길로 돌아서

몇 달 만에, 혹은 몇 년 만에 돌아옵니다.

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네가 ‘정상’을 넘어갔는데도 참고 견디느냐.

생각과 정신이 죽고, 신앙이 죽어서 그러하다.

모두 ‘죽은 것’을 살려라! 올해가 가기 전에 살려라!”

◆ 크레인도 ‘용량이 초과되는 무거운 것’을 들었는데
반응하지 못하고 견디면, 결국 분대가 부러지고 맙니다.

크레인도 예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

‘용량이 초과되는 무거운 것’을 들면 못 견디고,

뻑뻑 소리를 내며 반응을 보입니다.

- ◆ 기계도 ‘정상’을 벗어나 ‘한계 이상’ 초과했는데도 못 느끼고 견디면 고장 납니다.

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.

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예리하게 반응하고,

그 말씀을 자기 뇌 과일에서 빼지 않고

늘 ‘예리한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던 자’가

<하나님의 뜻 정상>에서 벗어나면 즉시 못 견디고 반응을 보입니다.

그리고 즉시 ‘하나님과 주’께 딱 붙어 행합니다. (믿습니까?)

◎ 말씀 마쳤습니다.